

2.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17

권기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I.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남미 전체
GDP 증가율	%(연증가율)	2.9	0.9	1.5	1.8	2.2	2.5	-12.0	1.3
1인당 GDP 증가율		2.0	0.1	0.5	1.0	0.9	1.3	-	0.3
소비자물가 상승률		22.9	2.7	1.9	4.0	6.4	2.0	1,133.0	5.3
명목 GDP	십억 달러	612	2,081	263	308	1,142	210	215	5,465
1인당 명목 GDP	달러	14,062	10,020	14,315	6,238	9,249	6,598	6,850	-
실업률	%	9.0	14.5	6.9	10.6	3.8	5.4	26.4	9.4
총 외채	십억 달러	204.8	667.8	173.6	124.8	323.4	80.2	120.2	1,812
수출		58.8	217.5	66.8	38.7	407.8	42.2	29.0	986.3
수입		64.6	151.0	61.4	45.5	411.6	36.9	18.5	959.6
무역수지		-5.8	66.5	5.5	-6.8	-3.8	5.3	10.4	26.6
외환보유고		54.6	381.1	38.0	47.4	176.4	64.4	9.8	867.0
경상수지	%(GDP 대비)	-5.1	-0.3	-1.0	-3.6	-2.8	-1.3	-0.4	-2.0
재정수지		-5.5	-7.8	-2.7	-3.6	-1.3	-2.9	-	-2.8

주 | 2017년 국별 통계의 일부는 각 기관의 추정치. 베네수엘라 총 외채는 2015년 기준

자료 | 명목 GDP, 1인당 명목 GDP, 베네수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IMF; 경상수지는 BBVA; 나머지 지표는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참조

II. 실물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 2017년 중남미 경제는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회복에 힘입어 2년 연속 침체에서 탈피해 성장세(전년대비 1.3%)로 돌아섬.

| 물가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증대, 이민의 송금 유입 확대 등의 호재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빠르게 증가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간 주춤했던 투자도 3분기부터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반전됨.

| 대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미미했음.

| 그간 뚜렷한 격차를 보였던 멕시코 및 중미 경제권과 남미 경제권의 성장세는 남미 경제권이 2016년 2분기 최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임.

| 국별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률이 전년보다 다소 둔화되는 모양새임.

- 아르헨티나 경제는 마크리 정부의 경제정상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며 빠른 회복세(전년대비 2.9% 성장)로 돌아섬.
- 브라질 경제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그 성장 폭은 0.9%로 미약함.
-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7년에도 마이너스 성장(-12.0%)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음.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2.4	-2.5	2.6	-2.3	2.9
브라질	3.0	0.5	-3.5	-3.5	0.9
칠레	4.0	1.9	2.3	1.6	1.5
콜롬비아	4.9	4.4	3.1	2.0	1.8
멕시코	1.4	2.8	3.3	2.9	2.2
페루	5.9	2.4	3.3	4.0	2.5
베네수엘라	1.3	-3.9	-5.7	-16.5	-12.0
중남미	2.9	1.2	-0.2	-0.8	1.3

주 | 2017년은 ECLAC 추정치, 베네수엘라의 2016년, 2017년 수치는 IMF 자료
자료 | ECLAC

:: 1인당 GDP도 2년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섬. 그러나 그 증가폭은 전년대비 0.3%에 그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가 2.0%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

|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브라질의 1인당 GDP도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그 증가폭은 0.1%에 머물.

주요국의 1인당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1.3	-3.5	1.6	-3.2	2.0
브라질	2.0	-0.4	-4.4	-4.3	0.1
칠레	2.9	0.8	1.2	0.5	0.5
콜롬비아	3.8	3.4	2.1	1.1	1.0
멕시코	0.0	1.5	1.9	1.6	0.9
페루	4.4	1.0	1.9	2.7	1.3
베네수엘라	0.0	-5.1	-6.9		
중남미	1.7	0.1	-1.3	-1.9	0.3

주 | 2017년은 ECLAC 추정치,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ECLAC

2. 투자

:: 1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투자는 2017년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섬.

| 중남미에서 투자가 장기간의 침체를 보인 주요한 이유는 남미, 특히 브라질에서의 투자 하락에 기인함.

| 그러나 2017년 3분기부터 남미를 중심으로 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이러한 상황은 반전됨. 남미에서 3분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함.

::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2017년 전체적인 중남미의 투자율(GDP대비)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 투자율은 2016년 18.7%에서 2017년 17.9%로 0.8%포인트 하락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중남미 평균이하의 투자율을 보임.

주요국의 투자율(GDP대비)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17.3	16.5	16.7	16.2	16.7
브라질	21.4	20.4	18.2	16.9	16.6
칠레	24.7	23.1	22.4	21.9	21.7
콜롬비아	25.0	26.3	26.0	24.6	24.6
멕시코	27.6	27.3	31.2	31.2	31.3
페루	22.4	23.3	26.3	27.4	27.2
베네수엘라	19.6	17.0	17.5	19.3	9.2
중남미	21.3	20.7	19.5	18.7	17.9

주 | 2010년 불변가격 기준, 2017년 베네수엘라 실업률은 IMF 통계
자료 | ECLAC

3.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가. 수출(상품수출)

::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은 전년대비 10.9% 증가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가격 인상(8%)과 수출 물량 증가(3%)가 수출 확대를 견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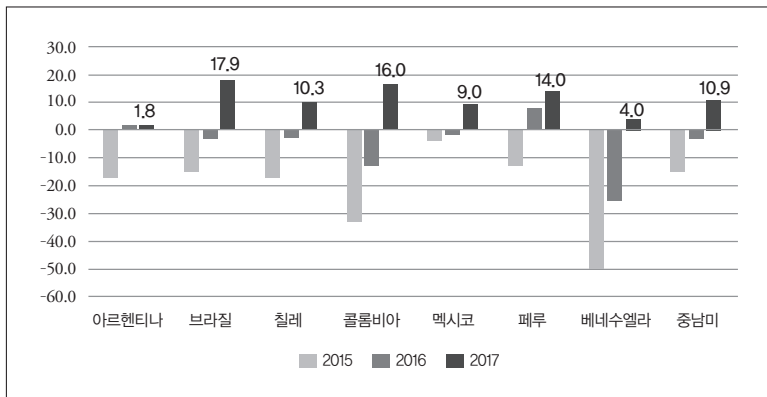
| 상품별로는 광물 수출국의 수출이 전년대비 15%, 석유 수출국의 수출이 12% 증가함.

:: 국별로는 철광석, 석유, 대두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브라질의 수출 성장세(17.9%)가 가장 두드러짐.

| 그밖에 콜롬비아(16.0%), 페루(14.0%), 칠레(10.3%), 멕시코(9.0%), 베네수엘라(4.0%), 아르헨티나(1.8%) 순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시현함.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ECLAC

:: 수출 확대에 힘입어 중남미의 수출 규모는 2016년보다 971억 달러 증가한 9,863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4,078억 달러로 수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뒤를 브라질(2,175억 달러), 칠레(668억 달러), 아르헨티나(588억 달러), 페루(422억 달러), 콜롬비아(387억 달러), 베네수엘라(290억 달러)가 이음.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81,660	68,407	56,813	57,784	58,831
브라질	242,034	224,098	190,092	184,453	217,470
칠레	76,684	74,924	62,183	60,597	66,847
콜롬비아	59,992	56,899	38,275	33,381	38,722
멕시코	380,741	397,650	380,976	374,296	407,796
페루	42,177	39,533	34,414	37,020	42,206
베네수엘라	89,000	74,714	37,357	27,868	28,983
중남미	1,119,154	1,083,333	919,908	889,136	986,270

자료 | ECL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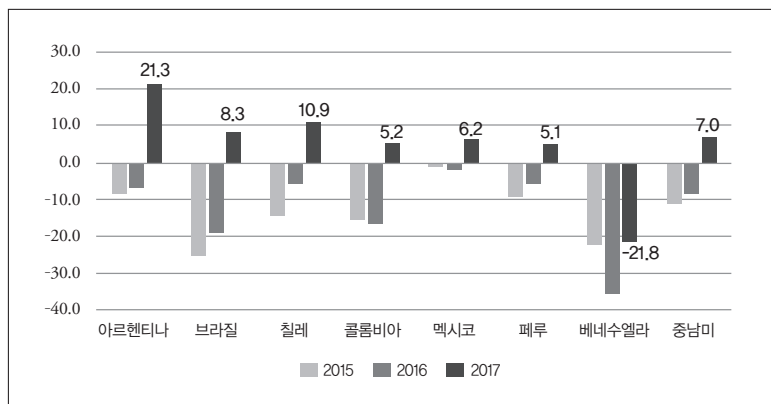
나. 수입

:: 중남미 경제의 회복을 반영해 수입도 증가세로 전환됨.

|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세로 반전된 수입은 전년대비 7% 증가함.

주요국의 수입증가를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ECLAC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이 증가함.

| 아르헨티나가 가장 큰 수입 증가세(21.3%)를 보였으며, 칠레(10.9%), 브라질(8.3%), 멕시코(6.2%), 콜롬비아(5.2%), 페루(5.1%)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그에 반해 극심한 외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수입은 전년대비 21.8% 급락함.

:: 2017년 중남미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626억 달러 증가한 9,596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4,116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 규모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1,510억 달러), 아르헨티나(646억 달러), 칠레(614억 달러), 콜롬비아(455억 달러), 페루(369억 달러), 베네수엘라(185억 달러)가 이음.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70,541	62,429	57,176	53,243	64,593
브라질	239,634	230,727	172,422	139,416	150,967
칠레	74,568	68,580	58,718	55,341	61,384
콜롬비아	57,160	61,539	52,050	43,239	45,490
멕시코	381,638	400,440	395,573	387,369	411,571
페루	42,217	41,042	37,331	35,132	36,923
베네수엘라	53,000	47,508	36,901	23,724	18,546
중남미	1,107,387	1,105,630	981,650	897,078	959,639

자료 | ECLAC

:: 수출 가격 인상에 힘입어 교역조건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2.4% 개선됨.

| 상품별로는 탄화수소(석유)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전년대비 12%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광물수출국의 교역조건도 6% 향상됨.

| 그에 반해 농업수출국의 교역조건은 에너지 및 중간재 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1% 하락함.

| 국별로는 콜롬비아의 교역조건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으며 그 뒤를 칠레, 브라질, 페루가 이음.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교역조건은 전년에 비해 소폭 악화됨.

중남미 교역조건 추이

(단위: 2010 = 100)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108.1	105.4	100.8	107.3	106.3
브라질	99.4	96.1	85.5	88.1	94.1
칠레	91.9	89.9	86.0	87.9	94.1
콜롬비아	100.6	91.6	69.1	68.7	75.1
멕시코	102.8	97.6	93.3	89.0	88.9
페루	99.0	93.6	87.8	87.0	91.4
베네수엘라	118.9	111.8	63.3	—	—
중남미	102.1	97.9	88.2	88.6	90.7

자료 | ECLAC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수입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출 신장세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2017년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됨.

| 중남미 전체 무역수지는 2016년 79억 달러 적자에서 2017년에는 266억 달러 흑자로 반전됨.

| 그러나 국별로 무역수지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냄.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큰 폭의 무역흑자를 달성한데 이어 칠레, 페루도 흑자를 시현함.

| 그에 반해 콜롬비아, 멕시코는 무역적자를 기록함.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무역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함.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11,119	5,978	-363	4,541	-5,762
브라질	2,400	-6,629	17,670	45,037	66,503
칠레	2,116	6,344	3,465	5,256	5,463
콜롬비아	2,832	-4,640	-13,775	-9,858	-6,768
멕시코	-897	-2,790	-14,597	-13,073	-3,775
페루	-40	-1,509	-2,917	1,888	5,283
베네수엘라	36,000	27,206	456	4,144	10,437
중남미	11,767	-22,297	-61,742	-7,942	26,631

자료 | ECLAC

:: 무역수지 개선에 힘입어 중남미의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개선됨.

| 국별로는 큰 폭의 무역흑자 확대에 힘입어 브라질의 경상수지 적자(204억 달러 → 120억 달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함. 그밖에 페루와 베네수엘라의 경상수지적자도 소폭 감소함.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의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적자 증가로 인해 큰 폭(150억 달러 → 270억 달러)으로 악화됨.

주요국의 경상수지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13	-9	-17	-15	-27
브라질	-75	-104	-59	-24	-12
칠레	-12	-5	-5	-4	-4
콜롬비아	-13	-20	-19	-12	-12
멕시코	-31	-23	-29	-23	-21
페루	-9	-9	-9	-5	-2
베네수엘라	5	5	-16	-4	-1
중남미	-165	-184	-173	-99	-86

주 | 2017년 ECLAC 기준, 2017년 중남미 총 경상수지규모는 카리브 제외

자료 | IMF

:: 2017년 중남미의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개선(1.9% → 1.6%)되었으나 국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름.

| 국별로는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대비 1%포인트 이상 하락해 큰 폭의 개선을 보임.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에서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7%에서 5.1%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멕시코에서도 소폭 증가함.

주요국의 경상수지(GDP대비) 추이

(단위: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2.1	-1.5	-2.7	-2.7	-5.1
브라질	-3.0	-4.2	-3.3	-1.3	-0.3
칠레	-4.1	-1.7	-1.9	-1.4	-1.0
콜롬비아	-3.3	-5.2	-6.4	-4.3	-3.6
멕시코	-2.5	-1.8	-2.5	-2.2	-2.8
페루	-4.4	-4.4	-4.8	-2.7	-1.3
베네수엘라	2.0	2.3	-6.6	-1.6	-0.4
중남미	-2.8	-3.1	-3.4	-1.9	-1.6

주 | 2017년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BBVA 전망치 기준

자료 | IMF

4. 정부지출 및 재정수지

:: 2017년 중남미 재정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GDP대비 21.3%)을 나타냄. 그러나 재정지출의 내용에서는 변화를 보임.

| 먼저 공공부채의 상환 규모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GDP대비 2.1%에서 2.3%로 증가함.

| 그에 반해 기초재정 지출(부채 상환 등 금융비용을 제외한 지출)은 15.5%(GDP 대비)에서 15.4%로 소폭 감소함.

| 소지역별로 기초재정 지출을 살펴보면, 먼저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정부 지출 축소 및 동결로 비교적 가파른 하락세(GDP대비 18.3% → 18.1%)을 보임.

• 반면에 멕시코와 중미에서 감소폭(GDP대비 13.0% → 12.9%)은 미미함.

:: 2017년 중남미의 명목 재정수지(GDP 대비)는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하는 수준에 그침.

| 그러나 재정수지를 기초재정수지(총 재정수지에서 금융비용 제외)와 명목재정수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이한 특징을 보임.

• 기초재정수지적자는 중남미 각국 정부의 지출 축소와 세수 확대 노력에 힘입어 2016년 1.0%에서 2017년에는 0.8%로 0.2%포인트 하락함.

• 그에 반해 명목재정수지적자는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소폭 증가(2.7% → 2.8%)함

| 소지역별로 재정수지적자도 상이한 양상을 보임.

• 중미의 경우 기초재정수지적자는 2년 연속 감소해 거의 균형(GDP대비 0.2% 흑자) 상태에 도달함. 그러나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확대로 명목재정수지적자는 GDP대비 2.1%에서 2.4%로 증가함.

• 남미의 경우 기초재정수지적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2016년 1.9% → 2017년 1%)로 돌아섬. 기초재정수지 개선에 힘입어 명목재정수지적자도 GDP대비 4.2%에서 3.9%로 하락함.

| 국별로는 브라질(-7.6% → -7.8%), 페루(-2.4 → -2.9%)에서 재정수지적자가 소폭 증가한데 반해 멕시코(-2.6% → -1.3%), 콜롬비아(-4.0% → -3.6%), 아르헨티나(-5.9% → -5.5%)에서는 하락함.

주요국의 명목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2.5	-4.2	-3.7	-5.9	-5.5
브라질	-2.6	-5.0	-9.0	-7.6	-7.8
칠레	-0.6	-1.6	-2.1	-2.7	-2.7
콜롬비아	-2.3	-2.4	-3.0	-4.0	-3.6
멕시코	-2.3	-3.2	-3.4	-2.6	-1.3
페루	0.7	-0.3	-2.2	-2.4	-2.9
베네수엘라	-	-1.9	-1.4	-	-
중남미	-2.6	-2.8	-2.8	-2.7	-2.8

자료 | ECLAC

:: 2017년 중남미의 총 정부부채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

| GDP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55.3%를 기록함.

| 그러나 국별로 공공부채 수준은 매우 다양함.

- 브라질이 73.9%(GDP대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데 이어 아르헨티나(53.7%), 온두라스(48.7%), 베네수엘라(47.4%)가 그 뒤를 따름.
- 반면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파라과이가 가장 낮은 수준(20.8%)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페루(23.0%)가 이음.

주요국의 총 정부부채(비금융부문)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43.5	44.7	53.5	54.2	53.7
브라질	56.7	58.9	66.5	69.9	73.9
칠레	20.5	24.0	27.6	30.7	30.9
콜롬비아	43.1	46.0	50.1	54.9	54.0
멕시코	36.8	40.1	44.2	50.8	46.7
페루	19.6	20.1	23.3	23.8	23.0
베네수엘라	32.9	28.5	31.7	44.6	47.4
중남미	52.9	53.4	54.5	55.9	55.3

자료 | ECLAC

5 실업률

::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2017년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2017년 실업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은 9.4%를 기록함.

:: 이 같은 실업률 증가는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고용시장 악화에 기인함.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고용률은 2014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나 2017년 들어 소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그 감소폭이 크게 둔화됨. 그 결과, 2017년 고용률 하락세는 전년대비 0.1%에 그침.

| 그밖에 중남미에서 실업률 악화는 노동시장에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아직까지 미약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실업률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한 14.5%에 달함.

| 최악의 경제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실업률도 전년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26.4%를 기록함.

| 그에 반해 멕시코의 실업률은 4.3%에서 3.8%로 0.5%포인트 하락함.

주요국의 (도시)실업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7.1	7.3	6.5	8.5	9.0
브라질	8.0	7.8	9.3	13.0	14.5
칠레	6.2	6.7	6.8	6.8	6.9
콜롬비아	10.7	10.0	9.8	10.3	10.6
멕시코	5.4	5.3	4.7	4.3	3.8
페루	4.8	4.5	4.4	5.2	5.4
베네수엘라	7.8	7.2	7.0	20.6	26.4
중남미	7.1	6.9	7.3	8.9	9.4

주 | 베네수엘라의 2016년, 2017년 수치는 IMF 통계

자료 | ECLAC

Ⅲ. 금융·외환지표

1. 환율

:: 2016년과 비교해 2017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완화됨.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일차산품 가격의 반등, 선진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개선 등이 중남미 외환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국별로 환율은 상이한 행보를 보임.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환율이 상승세를 보인데 반해 나머지 주요국의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냄.

-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환율은 인플레이션 증가 및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전년대비 17.4% 상승함.
- 브라질의 헤알화 환율도 하반기 연금개혁 좌초에 대한 우려로 전년대비 1.5% 상승함.

| 그에 반해 멕시코(전년대비 5.2% 하락), 칠레(7.8%), 콜롬비아(1.0%), 페루(3.3%)의 환율은 하락세를 보임.

- 특히 베네수엘라에서는 2017년 5월 환율제도 변경 이후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국가	2013	2014	2015	2016	2107	
					환율	2016년대비 변동률(%)
아르헨티나	6.52	8.55	13.01	15.85	18.60	17.4
브라질	2.35	2.66	3.90	3.26	3.31	1.5
칠레	523.76	607.38	707.34	667.29	615.22	-7.8
콜롬비아	1,926.83	2,392.46	3,149.47	3,000.71	2,971.63	-1.0
멕시코	13.08	14.72	17.21	20.73	19.66	-5.2
페루	2.79	2.99	3.41	3.35	3.24	-3.3
베네수엘라	6.28	12.00	13.50	672.92	9.98	-98.5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통화가치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통화가치 상승)을 의미
출처 | 각국 중앙은행.

2. 금리

:: 물가 하락세를 반영해 대부분의 중남미에서 정책 금리는 하락세를 보임.

| 중남미 7개국 기준으로 정책금리는 2016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8.9%를 기록함.

:: 그러나 소지역별로 금리 정책은 상이한 움직임을 보임.

| 물가 하락세가 뚜렷한 남미에서는 하락세를 보인데 반해,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멕시코 및 중미에서는 증가세를 보임.

| 브라질은 경기 부양을 위해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함. 그 결과,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2016년 14.2%에서 2017년 10.4%로 3.8%포인트 하락함.

| 그에 반해 멕시코는 물가 인상 억제이외에 2016년 중반이후 계속되고 있는 폐소화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함.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단위: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14.6	26.7	27.0	28.8	26.0
브라질	8.4	11.0	13.6	14.2	10.4
칠레	4.9	3.7	3.1	3.5	2.7
콜롬비아	3.4	3.9	4.7	7.1	6.3
멕시코	3.9	3.2	3.0	4.2	6.7
페루	4.2	3.8	3.4	4.2	4.0
베네수엘라	6.2	6.4	6.2	6.5	6.5
중남미	6.5	8.4	8.7	9.8	8.9

주 | 중남미 수치는 7개국 단순 평균

자료 | ECLAC

3. 소비자물가상승률

:: 2017년 중남미 소비자물가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5.3%를 기록함.

| 이 같은 소비자물가 하락은 여전히 미약한 국내 수요, 환율 하락(달러대비 각국 통화가치의 상승) 등에 기인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는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치에 근접함.

:: 그러나 지역별로 소비자물가는 상이한 추세를 보임.

| 남미에서는 소비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인데 반해 멕시코 및 중미에서는 증가세를 보임. 이 같은 요인은 환율 효과와 인플레이션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됨.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10.9	23.9	27.5	38.5	22.9
브라질	5.9	6.4	10.7	6.3	2.7
칠레	3.0	4.6	4.4	2.7	1.9
콜롬비아	1.9	3.7	6.8	5.7	4.0
멕시코	4.0	4.1	2.1	3.4	6.4
페루	2.9	3.2	4.4	3.2	2.0
베네수엘라	56.2	68.5	180.9	302.6	1,133.0
중남미	5.0	6.3	7.9	7.3	5.3

주 | 중남미 수치는 베네수엘라 미포함. 베네수엘라 2016년, 2017년 수치는 IMF 통계

자료 | ECLAC

4. 국가위험도

:: 중남미의 국가위험도(EMBI+ 기준)는 2016년 2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7년 들어서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그 결과, 2017년 중남미 국가위험도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437bps를 기록함.

| 이 같은 국가위험도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 중남미 역내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 그리고 중국 경제의 리스크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함.

|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국가위험도는 2017년 말 디폴트 선언이후 큰 폭으로 상승함.

주요국의 국가위험도 추이

(단위: bps, EMBI+, EMBI Global, 연말 기준)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808	719	438	455	361
브라질	224	259	523	328	243
칠레	148	169	253	158	118
콜롬비아	166	196	321	227	185
멕시코	155	182	232	232	186
페루	159	181	246	175	114
베네수엘라	1,093	2,295	2,658	2,138	3,267
중남미	410	491	584	483	437

자료 | ECLAC

5. 주가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가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의 주가가 전년대비 77.2% 증가해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였으며, 그 뒤를 칠레(35.0%), 페루(28.3%), 브라질(27.9%), 콜롬비아(12.0%), 멕시코(8.1%)가 이음.

| 그에 반해 극심한 정치경제의 혼란을 반영해 베네수엘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96.0%)함.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연말 기준)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주가	2016년 대비 변화율(%)
아르헨티나(MERV)	5,391	8,579	11,675	16,918	29,975	77.2
브라질(BOVESPA)	51,507	50,007	43,349	60,227	77,020	27.9
칠레(IGPA)	18,227	18,870	18,151	20,734	27,981	35.0
콜롬비아(COLCAP)	1,615	1,512	1,153	1,352	1,514	12.0
멕시코(PC)	42,727	43,146	42,977	45,643	49,354	8.1
페루(LIMA)	15,753	14,794	9,849	15,567	19,974	28.3
베네수엘라(BC)	2,736,585	3,859	14,588	31,705	1,263	-96.0

출처 | Bloomberg.

6. 외환보유고

:: 2017년 중남미 총 외환보유고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8,670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가 전년대비 40.7% 증가(158억 달러)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그밖에 브라질(4.4%), 페루(4.3%), 콜롬비아(1.6%)의 외환보유고가 증가세를 실현함.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대비 11.1% 하락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그밖에 칠레(-6.1%), 멕시코(-0.9%)의 외환보유고가 하락세를 보임.

:: 국별로 외환보유고 규모는 브라질이 3,803억 달러로 가장 크며, 그 뒤를 멕시코(1,764억 달러)가 잇고 있음.

|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의 외환보유고가 중남미 전체 외환보유고의 64% 비중을 차지함.

| 중남미 주요 7개국 중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규모(98억 달러)가 가장 작음.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르헨티나	30,599	31,443	25,563	38,772	54,563
브라질	358,808	363,551	356,464	365,016	381,056
칠레	41,094	40,447	38,643	40,483	38,033
콜롬비아	43,639	47,328	46,740	46,683	47,417
멕시코	180,200	195,682	177,597	178,025	176,441
페루	65,710	62,353	61,537	61,746	64,423
베네수엘라	21,478	22,077	16,367	10,992	9,767
중남미	830,204	857,634	811,913	831,542	867,042

주 | 2017년은 11월 말 기준

자료 | ECLAC

7. 국가신용등급

:: 2018년 2월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Moody's, S&P,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5개국임.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의 국가신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18년 2월 28일 기준)

	Moody's		S&P		Fitch	
	등급	평가 일자	등급	평가 일자	등급	평가 일자
과테말라	Ba1	2016.06.30	BB	2016.10.27	BB+	2011.11.21
도미니카공화국	Ba3	2017.07.20	BB-	2015.05.20	BB-	2014.11.21
멕시코	A3	2017.04.27	BBB+	2016.08.23	BBB+	2013.04.28
베네수엘라	Caa3	2016.03.04	SD	2017.11.14	C	2017.11.05
볼리비아	Ba3	2017.08.01	BB	2014.05.16	B+	2011.11.21
브라질	Ba2	2017.05.26	BB-	2018.01.11	BB	2016.05.05
아르헨티나	B3	2017.03.06	B+	2017.10.30	B	2016.05.10
에콰도르	B3	2016.11.23	B	2015.08.12	B	2013.10.18
엘살바도르	Caa1	2017.04.13	B-	2016.12.08	BB-	2013.07.16
우루과이	Baa2	2017.07.13	BBB	2017.05.30	BBB-	2017.09.21
칠레	Aa3	2017.08.24	A+	2017.07.13	A+	2011.11.21
코스타리카	Ba2	2017.02.09	BB-	2016.02.25	BB+	2011.11.21
콜롬비아	Baa2	2016.05.26	BBB	2016.02.16	BBB	2013.12.10
트리니다드토바고	Ba1	2017.04.25	A-	2016.04.22		
파나마	Baa2	2015.12.01	BBB	2012.07.02	BBB	2011.11.21
파라과이	Ba1	2016.06.21	BB	2016.06.15		
페루	A3	2017.08.23	BBB+	2013.08.19	BBB+	2013.10.23

주 | Moody's, S&P, Fitch.